

# 중년기 이후의 주거공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 Influential Factors on Size of Residential Space in Later Life

이인수\*  
Lee, In-Soo

###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size and deficit problem of residential space in later life. In this study, 216 Koreans aged 50 to 79 were surveyed for their current residential space and family related items such as age,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 birth order, and housing status. The results are drawn as follows: 1. The space size significantly fluctuates by marital status, number of generations living together, tenure, and structure type; For example, use of indoor area per person ranges from 7.01 pyoung for three-generation households to 19.53 for one-generation households. 2. As for space deficit, very old widowed females, 50's living in rented or multi-family housing units, and those living in three generations are high risk groups of the space deficit below 7 pyoung per person. In this study, further researches are recommended as follows; Regarding the highest risk group of space deficit, life styles causing space-related conflicts should be studied, and accordingly proper welfare services for the causal life styles be offered. Housing maintenance & utility costs be investigated and guidelines should be proposed for any surplus groups among the 60's, so that their space surplus can be reduced by suitable adjustment process.

### I. 서론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주택은 자연의 압력으로부터 가족들의 신체를 보호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근거지다(Oliver, 1985).

인간발달 측면에서 볼 때 청장년기 사람들은 목표의 성취와 능력개발, 그리고 어린 자녀의 양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50세를 전후한 중년기부터는 내면적 자아(inner self-identity) 성찰과 사회속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King & Elder, 1997).

이러한 심리적 변화로 인해, 중년기부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성숙한 인간적 교류를 보장해 주고 사회속에서의 역할과 기능과 위상을

나타내 주는 의미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성향이 더욱 커진다(최성재, 1994). 따라서 집에 이웃사람이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의 중요한 영역(예: 식사, 파티, 취미생활등)을 집에서 해소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그렇기에 중년기 이후 주거공간은 생물학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규모(size)를 갖추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불편이 발생한다.

주거공간의 적절한 규모로서 가장 일반화된 척도는 家口내 총 주거공간 면적(침실, 거실, 욕실, 주방, 베란다등)을 家口員수로 나눈 값, 즉 가족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다. 미국주택협회에서는 중년기 이후 성인 한사람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20m^2$  이상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 평이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있으며(임철우·윤중숙, 1993; Pynoos, 1993), 한국에서도 일반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고령자용 주거시설 규모에 있어(예:복지주택) 주거공간이 입소자 1인당 최소 7평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8). 이러한 국내의 기준으로 볼 때, 중년기 이후에는 1인당 최소 7평이상의 주거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생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거공간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① 과밀도(high household density)에서 오는 위생상의 문제, ②비좁은 공간에서 각자의 사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낮은 주거만족, 그리고 ③사회경제수준의 상징인 주거공간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존심 손상 등이 초래되어(Goldschneider, 1989; Crimmins, 1990) 결국 건강과 정서에 위협요인이 된다.

중년기 이후에 주어지는 주거공간의 규모, 그리고 이러한 주거공간 규모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부족현상은 일차적으로 가족사회학적 특성(socio-familial aspects)과 주거조건(housing status)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연령면에서 볼 때 50대는 자녀중 일부가 출가하거나 독립하긴 하지만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주거공간에 있어 다소 제약을 받는다. 그러다가 60대에 이르러 노부모가 사망하고 모든 자녀가 출가하면서 가족수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넓은 주거공간이 주어지지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1996), 배우자와 사별하고 신체능력이 감퇴되어 결혼한 자녀에 의존하여 손녀와 동거하는 70대부터는(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8) 주거공간이 다시 감소되는 시기일 것이다.

도시에 사는 가족의 경우 토지비용과 건축물 밀도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그리고 전월세나 공동주택에 사는 가족의 경우 자유로운 공간확장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주거공간 부족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이렇듯 중년기 이후 주거공간 규모와 공간부족가능성은 거주지역, 연령, 배우자 유무, 소유권과 주택형태 등 가족사회학적 특성이나 주거조건

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미래의 대비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이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1인당 주거공간 규모 및 부족여부별 가족사회학적 특성과 주거조건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미래의 세분화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신체기동력이 서서히 저하되어 외출이 힘들어지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지내기를 선호하면서 주거공간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기에(최성재, 1994), 중년기 이후부터는 주거공간의 규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50대이후부터는 근골격의 유연성이 급감하면서 高度의 수직적 신체기능(예: 일어서서 팔을 위로 뻗어 높은 곳에 물건을 올려놓음)을 기피하고 低度の 수평적 신체기능(예: 앉아서 방바닥에 물건을 넓게 늘어놓음)을 선호하면서 더욱 넓은 생활공간을 필요로 한다(Brecht, 1991).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공간욕구가 많아진 반면 주어진 공간은 부족한 상태로 지속될 경우, 생활의 불편, 가족들간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의견대립 등이 결국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간 화합을 저해한다.

주거공간의 부족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우리의 가족생활을 위협한다. 우선 주거공간이 부족할 경우 가족수의 과밀도로 인해 침실과 거실 공기 중에 높은 농도의 산화탄소(CO, CO<sub>2</sub>)가 누적되면서 오랜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중년기 이후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Akland et al., 1985). 특히 과밀도로 인한 위생문제에 있어, 재래식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농촌가구에서 겨울철에 중년기이후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이 높아진다(Parkhurst, 1988).

또한 중년기 이후부터 수면이나 식사시간, 이웃이나 친구를 데려오는 외향적 습성 등이 젊은 층과 차이가 생겨 손자녀세대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생활 침해와 수면방해로 인한 스트레스, 좁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자신의 경제력이 열악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사기저하 등이 심하게 나타난다(Botwinick, 1979; Pynoos, 1993).

중년기 이후 주거공간의 규모 및 부족여부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출생순위, 동거세대수, 그리고 주거조건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촌은 값싼 토지에 넓은 주택을 짓기가 쉬우며 젊은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더욱 넓은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주택밀도가 낮아 개보수 공사를 위한 차량통행이 용이하기에 자유로운 구조변경(예: 공간을 넓히는 작업)으로 공간부족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균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7세정도 많은데, 이혼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50대 중년기 이후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 중 80% 이상은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여성은 사별 후 곧 자녀와 결합하는 경향이 크다(AARP, 1996; 원영희, 1995). 즉, 고령의 여성은 배우자와 사별했으며 결혼한 자녀와 3세대 동거를 이루며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에 성, 연령, 혼인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거공간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수준 역시 주거공간 규모 및 부족여부에 관련성이 있음이 고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람들 중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의 65%는 자녀세대 혹은 친인척과 동거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약 45%만이 자녀나 친인척과 동거하며 55%정도는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여 넓은 공

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권오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60세이상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조절실행 의지가 강하여 공간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순위는 중년기이후의 주거관련 경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940-5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많은 형제중 맏이로 성장한 사람은 부모를 도와 동생들의 양육에 기여하고 가족간 결속을 유지한 맏가로 재산상속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다(배희선, 1998). 하지만 주택상속과 더불어 가족관리의 의무가 따르기에, 노부모와 함께 3세대 동거가구에서 살거나 미혼의 형제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생겨(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대가족에서 생활하며 주거공간 규모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1. 중년기 이후 주거공간 관련 핵심사항

문제의 영역	핵심사항
영향력 증대	① 신체기동력 저하로 주거공간내 생활 증가 ② 근골격 유연성 감소로 수평공간 욕구 증가
공간부족	① 과밀도로 인해 산화탄소가 누적되면서 호흡기 질환위험 증가 ② 수면이나 식사시간, 외향적 습성에 있어 젊은층과의 차이로 세대간 갈등 ③ 사생활 침해와 수면방해로 인한 스트레스 ④ 좁은 공간 인식에서 비롯되는 불안감 ⑤ 경제력 열악에서 비롯되는 사기저하
관련요인	① 농촌은 값싼 토지와 자녀의 도시이주로 넓은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 ② 농촌은 주택밀도가 낮아 증개축 용이 ③ 고령여성은 사별후 3세대 동거로 주거공간 부족 가능성 증가 ④ 고학력은 단독가구 형성및 주거조절 실행(증개축)으로 넓은 공간확보 ⑤ 맏이는 부모부양 책임으로 인해 3세대 거주 가능성 높음 ⑥ 自家거주 노인중 60%은 단독으로 거주하여 넓은 공간 확보 ⑦ 단독주택은 거주자 공간욕구가 수시로 반영되어 공간부족 해소

끝으로 소유권과 주택형태 역시 주거공간 규모와 연관성을 맺는다. 소유된 단독주택에서 타인의 간섭과 관리통제를 받지 않으며 최고의 privacy를 누리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것은 선진국과 한국에 있어 중년기 이후 사람들의 공통적인 열망이다(Morris and Winter, 1985;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3).

그렇기에 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중년기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열망을 성취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집단이므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신이나 부부만이 넓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사람들 중 60%는 독신이나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1세대 가구(독신이나 부부) 비율은 자가의 경우가 전월세보다 유의하게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개별 거주자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규격화되어 공급되는 반면, 단독주택은 건축당시는 물론 거주기간 동안 수시로 거주자의 공간욕구가 반영되었기에(최영순·박현옥, 1998) 상대적으로 주거공간 부족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 이후부터는 주거공간의 규모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며 공간이 부족할 경우 건강과 정서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한다. 또한 주거공간 규모와 부족여부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출생순위, 동거세대수, 그리고 주거조건(소유권 및 주택형태)등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가능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중년기 이후 주거공간 규모 및 부족현상 문제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연구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 하에 본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50세이후 중노년기 사람들에게 주어질 1인당 주거공간의 규모 및 부족여부를 가족사회학적 특성 및 주거조건별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50세 이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家口에 있어 가족 1인당 주거공간의 규모, 그리고 주거공간 규모가 부족한 가구의 비율을 ①거주지역, ②성별 및 배우자 유무, ③연령, ④출생순위, ⑤교육수준, ⑥동거세대수, 그리고 ⑦소유권 및 주택구조 등 가족사회학적 특성과 주거조건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분석함.

2.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보다 세분화된 미래 연구과제를 제시함.

####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8년 3월1일-1998년 11월30일 사이에 경기와 충남 및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남녀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및 가족관계에 관한 종합설문조사”자료 중 조사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50세 이상 2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교양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무작위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인바, 도시거주는 43.1%, 농촌은 56.9%였으며, 남자는 47.2%, 여자는 52.8%였고 배우자 有는 56.5%였으며 無는 43.5%였다.

평균 연령은 64.3세이며 만이로 태어난 사람은 37.9%, 2순위이상은 62.1%였으며 동거세대수에 있어 33.8%는 중년기 이후 부부만 사는 1세대였고 25.9%는 부부및 자녀가 사는 2세대, 그리고 나머지 40.3%는 부부, 자녀, 손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였다. 끝으로 주거조건에 있어 응답자 중 56.9%는 自家에서 살고, 66.7%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표2).

표 2. 조사대상자 특성

항 목	측정값(N=216)
지역(%)	93(43.1)
도시	123(56.9)
농촌	
성별(%)	102(47.2)
남	114(52.8)
녀	
배우자유무(%)	122(56.5)
유	94(43.5)
무	
연령	64.3
평균	7.29
표준편차	50-79
범위	
교육수준(%)	184(85.2)
고졸이하	32(14.8)
전문대재학 이상	
출생순위(%)	82(37.9)
말이	134(62.1)
2순위이상	
동거세대수(%)	73(33.8)
1세대	56(25.9)
2세대	87(40.3)
3세대	
주택소유(%)	123(56.9)
자가	93(43.1)
전월세	
주택형태(%)	144(65.7)
단독	72(34.3)
공동	

3. 분석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 질문된 항목은 ①거주지역, ②성별, ③배우자 유무, ④연령, ⑤교육수준, ⑥형제자매 중 출생순위, ⑦동거세대수, ⑧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인척 등), ⑨현재의 주택 중 가족이 사용하는 실내 주거공간 면적(坪), 그리고 ⑩주거소유(자가/전월세)및 주택구조(단독/공동)등이었다.

입력된 설문조사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는바, 가족 1인당 주거공간면적(坪)과 주거공간 부족가구 비율이 거주지역,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대, 교육수준, 출생순위, 동거세대수, 주거소유(자가/전월세), 주택형태(단독/공동)등 특성별로 F-ratio에 의해 집단간 비교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족사회학적 특성 및 주거조건

항목만 따로 추출하여, 주거공간 부족 가구의 분포를 독립변수가 2개인 two-way chi-square test(odd-ratio 산출)에 의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주거공간: 건축물 대장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공간 중 가족의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콘테이너, 창고 제외)

②1인당 주거면적: 위 주거공간을 함께 사는 가족수로 나눈 값(단위:坪).

③주거공간 부족 가구: 위에서 산출한 1인당 주거공면적이 복지주택 및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1인당 최소 주거공간 면적 기준(보건복지부, 1998)인 7坪 미만인 경우.

④自家: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의 소유.

⑤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기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 일체.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①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실비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며 서울특별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당 월소득이 250만원이상 되는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기에, 분석결과는 중소도시 중류층에 관한 자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따른다.

②본 연구에서 정의되는 주거공간은 건축물 대장에 신고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간만을 의미한다. 단독주택 경우 콘테이너나 목재로 조립한 가건물 공간(예: 부엌 뒤 다용도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경우 공유면적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1인당 주거공간 산출은 단독주택 경우 실제 가족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간 보다 다소 축소되고, 공동주택 경우 확대될 수가 있는 제한점이 따른다.

IV. 결과 및 고찰

1. 1인당 주거공간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특성별 1인당 주거공

간규모는 표3에 정리된다. 거주지역 별로 분석한 결과, 도시 경우 1인당 주거공간의 평균은 11.25 평인데 비해 농촌은 14.14평으로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넓지만 개인간 편차가 심해 집단간 비교 f-test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평균은 각각 14.64와 11.38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넓은 공간을 사용하지만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 有와 無(이혼이나 사별)의 평균은 각각 14.98과 9.89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이후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세대와 함께 3세대 가구의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50대, 60대, 70대의 평균은 각각 11.09, 15.49, 10.14로서 60대 사람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60대에는 자녀를 취업이나 결혼으로 모두 출가시킨 후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기에 부부만의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70대 이후 다시 자녀와 동거하는 선행연구(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19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와 일관된 경향으로 풀이된다.

교육수준 별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출생순위 경우 맏이와 비맏이의 평균값은 각각 15.53과 11.94로서 맏이가 다소 높은 바(p<.10), 맏이가 부모부양을 위해 3세대 대가족에서 살며 공간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행연구 고찰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은 60-70대 노인이기에 맏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고령으로 이미 사망하여 부모부양으로 인한 3세대 동거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상속받은 주거자원(예: 오래 전에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그대로 남아있어 맏이에게 오히려 유리한 주거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중년기 이후 중에서 특히 노년

표 3. 1인당 주거공간 규모(단위:坪)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ratio(p)
거주지역				
도시	11.25	9.75	93	1.29(0.26)
농촌	14.14	15.23	123	
성별				
남	14.64	14.92	102	2.32(0.11)
여	11.38	12.85	114	
배우자				
유	14.98	16.42	122	5.85(0.01)**
무	9.89	9.68	94	
연령대				
50대	11.09	10.51	105	2.94(0.05)*
60대	15.49	15.42	75	
70대	10.14	11.83	36	
교육수준				
고졸이하	13.12	14.49	184	0.12(0.73)
전문대이상	15.73	12.44	32	
출생순위				
맏이	15.53	17.58	82	2.64(0.10) <sup>1)</sup>
2순위이상	11.94	11.32	134	
동거세대수				
1세대	19.53	18.53	73	16.01(0.00)**
2세대	15.22	13.79	56	
3세대	7.01	5.12	87	
주거소유				
자가	15.62	14.96	123	5.81(0.01)**
전월세	10.58	12.35	93	
주택형태				
단독	14.61	14.82	142	4.71(0.03)*
공동	9.32	9.21	74	

\*:p<0.05 \*\*:p<0.01 <sup>1)</sup>p<0.10

기부터는 맏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거세대수 별로 비교해 보면, 1, 2, 3세대 가구의 평균은 각각 19.53, 15.22, 7.01로서 3세대 가구가 현저하게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특히 3세대 가구의 평균은 다른 집단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기에 결국 동거세대수가 많은 가족은 주거공간 규모가 매우 적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p<.01).

주거조건별 비교에 있어서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월세 집단보다,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 집단이 공동주택 집단보다 1인당 주거공간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자가에 거주하는 집단은 자녀와 독립해서 단독 가구를 형성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단독주택은 건축당시는 물론 거주기간 동안 수시로 거주자의 공간욕구가 반영되어(최영순·박현옥, 1998) 비교적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 2. 공간부족 가구의 비율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변인별 1인당 주거공간 부족가구의 비율은 표4에 정리된다. 거주지역 별로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주거공간부족 가구의 비율은 0.46인데 비해 농촌은 0.39로 도시가 농촌보다 다소 높지만 집단간 비교 f-test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0.29와 0.49로서 남자보다 여자가 공간부족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1).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 유와 무(이혼이나 사별) 경우의 비율은 각각 0.33과 0.47로서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공간부족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성별과 배우자 유무에 있어 집단간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듯이, 중년기 이후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고령 여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자녀와 합류하여 3세대 가구의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공간부족 비율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대와 교육수준, 출생순위별 집단간 비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당 주거공간 규모에서는 연령대와 출생순위에 있어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그러한 차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의 개인별 규모차이가 나타난 것이며 기준이하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동거세대수 별로 비교해 보면, 1, 2, 3세대 가구의 공간부족가구 비율은 각각 0.24, 0.29, 0.55로서 3세대 가구에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노인-자녀-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세대는 주거공간이 기준에 못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p<.01).

표 4. 주거공간 부족 가구의 비율

항목	비율	표준편차 <sup>1)</sup>	사례수	F-ratio(p)
<b>거주지역</b>				
도시	0.46	0.50	93	1.89(0.17)
농촌	0.39	0.48	123	
<b>성별</b>				
남	0.29	0.46	102	8.26(0.00)**
여	0.49	0.50	114	
<b>배우자</b>				
유	0.33	0.47	122	3.58(0.05)*
무	0.47	0.50	94	
<b>연령대</b>				
50대	0.45	0.51	105	1.48(0.23)
60대	0.33	0.47	75	
70대	0.45	0.50	36	
<b>교육수준</b>				
고졸이하	0.37	0.49	184	0.10(0.75)
전문대이상	0.32	0.48	32	
<b>출생순위</b>				
말이	0.37	0.48	82	0.10(0.96)
2순위이상	0.35	0.49	134	
<b>동거세대수</b>				
1세대	0.24	0.43	73	8.87(0.00)**
2세대	0.29	0.55	56	
3세대	0.55	0.50	87	
<b>주거소유</b>				
자가	0.29	0.45	123	7.86(0.00)**
전월세	0.49	0.50	93	
<b>주택형태</b>				
단독	0.30	0.47	142	7.71(0.03)**
공동	0.54	0.50	74	

\*:p<.05 \*\*:p<.01 <sup>1)</sup>부족여부를 1, 0으로 하여 산출함

주거조건별 비교에 있어서 전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가거주 집단보다,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 집단이 단독주택 집단보다 1인당 주거공간 부족 가구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한대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집단은 자녀와 독립해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 가능성이 자가거주 집단보다 낮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공동주택은 건축당시는 물론 거주기간 동안 규격화된 건물에 공간욕구를 반영할수 없어(최영순·박현옥, 1998) 넓은 주거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 3. 공간부족 가구의 주요 요인별 분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인당 주거공간 규모 및 부족가구 비율은 ①성별, ②배우자 유무, ③연령대, ④출생순위, ⑤동거세대수와 같은 가족사회학적 속성과 ①주거소유 및 ②주택구조와 같은 주거조건 별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에 의해 주거공간 부족 가구가 분포하는 비율을 좀더 세분화 해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성별과 주거조건과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주거공간 부족가구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전월세에 사는 여자로서, 전체 주거공간 부족사례의 38.1%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5. 주거공간 부족 가구의 주요 요인별 분포(%)

변인	주거소유 자가 전월세		주택형태 단독 공동	
	성별			
남	31.6	22.0	33.2	17.2
녀	9.3	38.1	24.4	25.2
	계) 100.0		계 100.0	
	$\chi^2=10.01^{**}$ d.f.=1		$\chi^2=1.35$ d.f.=1	
배우자				
유	32.4	22.1	35.3	19.1
무	10.3	35.3	23.5	22.1
	계 100.0		계 100.0	
	$\chi^2=9.38^{**}$ d.f.=1		$\chi^2=1.23$ d.f.=1	
연령				
50대	19.1	26.5	25.5	30.9
60대	16.2	25.0	10.3	20.6
70대	0.0	13.2	2.9	10.3
	계 100.0		계 100.0	
	$\chi^2=9.83^{**}$ d.f.=2		$\chi^2=8.21^*$ d.f.=2	
출생순위				
말이	17.6	17.6	22.1	13.2
2순위이상	25.0	39.7	36.8	27.9
	계 100.0		계 100.0	
	$\chi^2=0.82$ d.f.=1		$\chi^2=0.20$ d.f.=1	
동거세대수				
1세대	11.8	7.4	13.2	5.9
2세대	13.2	5.9	13.2	5.9
3세대	17.6	44.1	32.4	29.4
	계 100.0		계 100.0	
	$\chi^2=9.06^{**}$ d.f.=2		$\chi^2=1.88$ d.f.=2	

\*:p<.05 \*\*:p<.01 <sup>1)</sup>모든 cell %의 합=100.0%

배우자 유무와 주거조건과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배우자 없이 전월세에 사는 집단으로서, 전체 주거공간 부족사례의 35.3%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연령대와 주거조건과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50대로서 26.5%(p<.01),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50대로서 30.9%로 나타났다(p<.05). 특히 50대 연령층은 주거소유 및 주택형태와의 복합적 영향에서 모두 유의하게 분포상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전월세로 살거나 공동주택에 사는 50대는 자녀와 함께 살기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요인(예: 80-90대 노부모를 부양함)으로 인해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순위와 주거조건과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는 특별히 공간부족 가능성이 유의하게 큰 집단이 없으며 동거세대수와 주거조건과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전월세에 3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4.1%를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①전월세에 사는 집단, 그리고 ②3세대 동거 집단이 공간부족 위험이 가장 큰 점이 동시에 작용한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이후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거공간의 규모와 그 부족현상을 가족사회학적 특성 및 주거조건 별로 구분하여 집단간 비교 분석한 연구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배우자 유무별 1인당 주거공간의 평균은 각각 14.98와 9.89평으로서 보건복지부 기준인 7평보다 넓지만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p<.01). 이러한 결과는 3세대 동거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별 고령여



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 50대, 60대, 70대의 1인당 주거공간규모의 평균은 각각 11.09, 15.49, 10.14평으로서 60대 사람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60대 초반에 자녀출가 후 건강한 상태에서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70대 이후 다시 자녀와 동거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3. 만이와 非만이의 1인당 주거공간 평균은 각각 15.53과 11.94평으로서 만이가 다소 높았다( $p < .10$ ).

4. 1, 2, 3세대 가구의 1인당 주거공간 평균은 각각 19.53, 15.22, 7.01평으로서 3세대 가구가 현저하게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거세대수가 많은 가족은 주거공간 규모가 매우 적은 위험집단임을 의미한다( $p < .01$ ).

5. 주거조건별 비교에 있어 자가에 거주하는 집단, 그리고 단독주택 거주 집단의 1인당 주거공간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자가에 거주하는 집단은 자녀와 독립해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단독주택은 거주자의 공간욕구가 증대축으로 반영되어 넓은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 공간부족을 겪는 비율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0.29와 0.49로서 남자보다 여자가 공간부족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1$ ).

7. 공간부족을 겪는 비율을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 유와 무의 비율은 각각 0.33와 0.47로서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공간부족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8. 공간부족을 겪는 비율을 동거세대수 별로 보면, 1, 2, 3세대 가구의 공간부족가구 비율은 각각 0.24, 0.29, 0.55로서 3세대 가구에서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p < .01$ ).

9. 주거조건별 비교에 있어 전월세 거주자들이 자가거주 집단보다,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단독주택 집단보다 1인당 주거공간 부족 가구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1$ ).

10. 성별과 주거조건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전월세에 사는 여자이며, 배우자 유무와 주거조건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배우자 없이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다.

11. 연령대와 주거조건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전월세 거주 혹은 공동주택 거주 50대이며, 동거세대수와 주거조건의 복합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월세 3세대 거주가 주거공간 부족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이후 필요한 주거공간 규모를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인당 7평 이상으로 고정시키고 그 7평을 기준으로 주거공간 부족가구 분포를 계산하였지만, 이렇게 고정된 기준은 건설교통부(2000)가 전체연령 인구주택 조사에 이용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의하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1인당 주거공간 규모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욱 작아진다. 예를 들어 일반 연령층의 4인 거주 가구 경우 1인당 필요한 최소공간은 2.8평이지만 7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2.25평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거가족수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 1인당 7평을 기준으로 주거공간 부족여부를 산출함으로써 건설교통부 제시 기준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주거공간의 규모는 가족구성원간 정서적 친밀도에 따라 서로 회피하거나 접근하려는 욕구가 발생할 경우, 가족수별로 일관된 규칙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Hall, 1966; Kim, 1979). 따라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족 경우 그 고령자의 신체기능과 정서상

태는 물론 가족내 역할에 따라 가족수와 1인당 필요한 주거공간규모의 관계는 예측불허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신체적 노쇠현상은 물론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 등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손자녀의 생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가족구성원에게 회피 경향을 가중시킬 수 있다(임장순, 1971). 이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마다 그 고령자와의 근접을 회피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욕구가 발생하면서, 고령자가 없는 가족에 비해 1인당 필요한 최소 공간규모가 예측할 수 없게 커질 것이다.

반면 그 고령자의 신체노화정도가 약하고 가족에게 순응적이고 중재적인 태도를 견지함은 물론 손자녀와의 친근한 공유활동이 많고 가사노동 분담능력이 클 경우, 고령자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인해 가족간 친밀도와 근접성(proximity)이 증가하여(김광숙, 1987) 1인당 필요한 주거공간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듯, 고령의 가족이 동거할 경우 그 고령자의 속성 및 가족내 역할에 따라 주거공간 규모에 증가 혹은 감소의 교차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고령자 가구의 1인당 필요 주거공간 규모는 가족수 별로 일관된 기준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기술한 대로 일반연령층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1인당 7평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간부족 현상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미래의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주거공간 부족 가능성이 유의하게 큰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부족 불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하며, 특히 주거공간 사용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생활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 없이 전월세에 사는 사람, 그리고 노인-자녀-손자녀 3세대가 전월세에 거주하는 중노년기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양식을

연구하고,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적절한 주거보장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정순희, 2000), 중년기 이후에는 살아오면서 고정된 성격과 습관이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루고 이러한 생활양식에 따라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전통지향적이고 현실순응형인 사람은 식사와 취침시간대가 자녀세대와 비슷하지만, 현실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유형은 자녀세대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상생활이 이루어져 비좁은 주거공간내에서 세대간 차이에 의한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주거공간 부족 가구중 35-44%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인 ①전월세 3세대 동거, 그리고 ②사별후 전월세에 사는 중노년기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방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주거공간으로 인한 불편과 세대간 갈등이 가장 큰 생활방식 유형을 구분한 뒤, 특별 여가공간(예: 사별한 고령 여자 중 자기중심적인 유형을 위한 주간 보호 공간)을 실비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50대 중에서 전월세에 살거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집단의 공간부족이 자녀세대와의 동거로 인한 과밀도 혹은 노부모(80-90대) 부양으로 인한 과밀도에서 비롯되는지 여부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50대 중년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장정책(예: 서민아파트임대)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자녀교육, 혹은 노부모 부양 가정에게 우선권을 주는 차별화 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1인당 주거공간 규모가 특이하게 큰 집단을 대상으로(예: 부부만이 자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60대 경우) 주거비를 산출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양세정·성영애(2001)의 연구에 의하면 총 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50대에 비해 60대 부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60대에는 넓은 주거공간으로 인한 경제부담의 역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 규모가 특별히 큰 60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예: 난방, 광열)의 적절성을 조사한 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주거비용이 과도한 사람들에게 소규모 아파트로의 일시적인 이어나 자녀와의 재결합 등 주거조절을 권장하는 정책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2000).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보도자료.
2.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권오정(1997). 노인단독 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1), 1-18.
4.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移轉.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5. 보건복지부(1988). 노인복지사업 지침. p.171
6.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1). 한국영아의 사망을 추정 및 사망구조분석.
7.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p.173-190.
8. 원영희(1995). 동별거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5(2), p.97-116.
9. 임장순(1971).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10. 임철우·윤종숙(1993). 노인을 위한 공간. 경춘사.
11. 정순희(2000). 노인의 생활양식에 따른 식생활 실태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지 10권. p.115-140.
12. 최영순·박현옥(1998). 주거환경 계획을 위한 거주자 요구조사. 한국주거학회지 9(2), p.79-87.
13. 최성재(1994). "노인주택 개발과 정책",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p.61-81.
14.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홍익재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 과제.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정책 과제.
17. Akland, G.G. et al.(1985). Measuring human exposure to carbon monoxide in Washington, D.C. and Denver during winter of 1982-83. Environ.Sci. Technol. 19:911-18.
18. American Association of Homes for the Aged(1993). Annual Report.
19. American Association Retired Persons(1996). Guidebook of Planning for the Retirement
20. 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Wadsworth Publishing Co.CA,U.S.A.
21. Botwinick, J. (1978). Aging and Behavior. Springer Publishing Co. New York.
22. Brecht, S. (1991). Retirement Housing Marke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23. Casterline, J.(1993)."Difference in the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Four Asian Countries" PSA Research Report Series, No.91-1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 U.S.A.
24. Crimmins, E.(1990).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Research on Aging, 2(1), p.3-35.
25. Goldschneider, C. (1989).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Westview Publication Co., New York, U.S.A.
26. Hall, E. T. (1966).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27. Kim, Y. C. (1979). Placeness of space: In the case of the column. *Edinburgh Architecture Research*, Vol.6, pp.1-10.
28. King, V. and Elder, G.(1997). The legacy of grandparenting.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48-859.
29. Morris, E. and Winter, M.(1985). A Note on the Microsociology of Housing. Iowa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aper, J-11486 Ames, Iowa, U.S.A.
30. Oliver, P.(1985). *The Dwellings*, University of Texas Press.
31. Parkhurst, W. et al.(1988). Influence of indoor combustion sources on indoor air quality. *Environ. Prog.* 7:257-61.
32. Pynoos, J. & Regnier, V.(1993). *Housing the Aged*, Elsevier Press, London.
33. Somers, R. and Spears, N.(1992). *The 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